

대면(對面)의 시작과 함께 봄을 보내며



김 홍 연

(K-Risk 발간편집위원회 위원장

/삼부토건 기술연구소 차장)

bigyeon0@gmail.com

2년여 지나긴 COVID-19의 늪에서 겨우 빠져 나와 일상이 점점 비대면에서 대면의 시대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습관과 변이종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아직도 거리에서는 마스크 벗기를 꺼리며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젠 언제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기분만으로도 설레었던 봄이 지나가고 이제는 무더운 계절이 다가 오고 있다.

그간의 시간들을 거처오면서 국내 건설전문가들로부터 시작한 K-Risk도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긴 듯하여 돌아보면 뿌듯하기도 하다. 또 한번 K-Risk의 생동을 외치는 뉴스레터 봄호를 늦은 봄날 발간하게 됨을 모든 회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본 호에서는 올해 2월에 발간된 겨울호에 이어 『ESG 관련 리스크에 ERM 적용하기』,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성숙도 모델 RM3』, 『도로 지오 해저드에 관한 리스크관리 핸드북』이 계속하여 연재된다. 또한, 『Project Schedule 불확실성 모델링』과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단편 시리즈로서 『기후 리스크관리에서의 인지편향』이 새롭게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K-Risk 회장인 임종권 박사가 리스크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건설관리학회(KICEM)와 우리 K-Risk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계획 추진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행사로 지난 3월에 개최된 2022년 제1회 리스크전문가 초청세미나가 본 뉴스레터에도 한번 더 소개되었고, 그 외에 제1차~3차 리스크 Training Workshop 결과와 3분기 계획도 담았다.

서로가 친해지는 과정속에서 K-Risk가 발전할 수 있다는 K-Risk 회원들의 공감하에, 공부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 줌 회의실과 강의실에서만 만났던 회원들이,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1박2일간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뜻깊었으며, 그 후기도 간략히 실었다.

본 뉴스레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호 등 년 4회 발간되며, 남은 올해도 세미나와 Training Workshop뿐 아니라 RBE(리스크기반견적) 가이드라인 발간, 제3회 PRM 컨퍼런스 등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다. 집필과 발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면 회원 또는 비회원 누구든 환영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K-Risk를 함께 키워나갈 새로운 회원을 기다리며 글을 마친다.